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하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유태인의 교훈처럼 '고기를 낚는 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영수증'을 주고 싶습니다.

*유니세프(UNICEF)에 후원했던 영수증입니다.

얼마전 이것들을 '가보'로 삼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빠는 이렇게 산단다라는 자랑도 섞여 있습니다.

'멋진 아빠'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데서 그치는 가보가 아닌, 대를 이어가며 쌓아올리는 가보가 되도록 제 자신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더욱 열심히 후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뿌듯한 약속입니다.

▶ 유니세프(UNICEF) : 국제 유엔 아동기금

* 유니세프 후원금

2만원 : 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 30명에게 고단백 영양식 유니믹스(UNIMIX)를 제공

3만원 : 콜레라, 설사병으로 인한 탈수로 고생하는 720명에게 구강수분 보충염(ORS)를 제공

5만원 : 영양실조로 인하여 시력을 잃어가는 1천명의 어린이에게 비타민A를 제공할 수 있으며,

6만원 : 400여명의 어린이에게 디프테리아, 결핵, 홍역등 기본 예방접종을 실시

8만원 : 르완다, 소말리아와 같은 긴급사태나, 비상구호시 700여명의 어린이에게 고단백 비상식 제공

10만원 : 마실 물 한 통을 길어오기 위해 반나절을 걸어야 하는 오벽지 마을에 펌프 1대를